

[나의 초보 양육기 4] “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뿐”

이병철 집사 / 2002 / 페이지 수: 2

나는 일대일 양육을 영어로 받았다.

내가 사역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침 외국인 취업 노동자들을 위한 일대일 사역자 양성을 위한 일대일 동반자/양육자 과정이 개설되어서 일대일이 아닌 일대육의 영어 동반자/양육자 과정을 배우게 된 것이다. 그 후 그 뜻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시 양육자 과정을 마치고 일대일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다.

일대일 교재에 있는 여러 과제들이 내가 오랫동안 고민해 오면서 나 나름대로 정리해 오던 교리와 제자도에 관한 과제들이어서 별로 생소하지 않았다. 나 자신이 그러한 과제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일대일 양육을 해야 된다는 양육자 과정도 목사님의 말씀을 별로 망설임 없이 받았다.

은혜보다 지식으로 한 양육

첫 동반자는 모 대학 공학박사 과정의 조교였다. 나도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화가 잘 이루어졌다. 많은 부분에서 관점이 같았고, 전 과정을 통하여 과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신앙적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었다. 그 동반자가 갖고 있던 어떤 문제점도 결코 자기 혼자만이 갖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, 또 어떤 문제라도 마음을 열고 토론함이 전혀 신앙의 문제로 인식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신시켰다는 생각이 든다.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런 일대일이 있었으면 그 많은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았을 걸 하면서 나는 일대일을 잘 했다고 생각했다.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동반자를 깊은 은혜의 삶으로 인도했느냐 하는 데는 자신이 없다. 그것은 나 자신이 깊은 은혜보다는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.

그 다음에 만난 동반자 두 팀은 모두 아내의 권고에 의해 교회로 인도된 신앙생활의 초기에 있던 부부 팀이었다. 부인들은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지만 남편 되신 분들은 신앙을 윤리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분들이었다. 일대일이 가르침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들어온 나는 대화의 기수를 동반자의 관심에 맡기려고 노력했다. 그래서 매 과제를 통한 대화의 초점은 삶의 의미, 목적, 기독교 가치관, 기독교윤리 등에 맞추어 졌다. 나는 동반자들과 나이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삶과 신앙생활에 대한 경험을 같이 나눌 수 있었다. 나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양육이 더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. 그러나 양육을 마치던 날 “양육자 과정을 빨리 이수하고 양육자가 되시기 바랍니다.”라고 했더니 “양육자가 되려면 집사님처럼 많이 알아야 양육자가 될 터인데 어떻게 양육자가 되겠습니까?”라는 말을 듣고 나는 나의 양육이 또 잘못된 것을 알았다.

내 동반자들에게 미안할 뿐

그 후 계속된 양육을 통하여 나는 ‘눈높이 양육’을 하려고 노력했다. 동반자와 같은 높이에 서 삶과 신앙을 나누려고 하니깐 양육 시간의 열의가 동반자의 열의 보다 더 뜨거워질 수 없어서 힘들 때도 있었다. 또 동반자의 은혜는 뜨거운데 나 자신이 따라 잡을 수가 없어서 양육이 끝난 다음 내가 동반자의 은혜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여러 번 있었다. 부족한 양육자를 만났던 동반자님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. 이렇게 부족한 양육은 앞으로도 계속 되겠기에, 내가 동반자에게 공급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채워주시고, 동반자가 나 같은 부족한 양육자를 보고 ‘양육자가 저 정도 같으면 나도 양육할 수 있겠구나’라고 생각하는 용기만이라도 심을 수가 있게 되기를 주님께 기도한다.

* 출처 : 큐티와 일대일